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1. 목장 모임의 방향

더온누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더 예수님처럼'입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양육의 시간도 함께 합니다. 이는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두어야겠지요.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도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함께 모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 무엇을 나누나요?

매주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니다. 나눔지는 매주 주일에 준비되며, 각 목자원들의 진솔한 나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끝나는 이론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3. 어떻게 진행되나요? (4W의 원리)

마음 열기 Welcome	경배 찬양 Worship	말씀&기도 Word	나눔과 실천 Work
------------------	------------------	---------------	----------------

[마음 열기]를 위한 간략한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드리고, [경배 찬양]은 그 주일의 적용 찬양입니다.

[말씀&기도]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나눔과 실천]은 질문/나눔 등을 통해 함께하시면 됩니다.

4. 언제, 어디에서 모이나요?

일주일 중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하루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더온누리교회는 금요일 저녁을 목장 모임을 위한 시간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 목장 별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기초적인 신뢰를 구축하게 되지요. 각 목장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한 후에는, 가능한 이에 준하여 모임을 갖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모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하는 교안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도록 모임 시간을 정해야 하며, 함께하는 목장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치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서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나눔을 함께할 때에는, 각 사람이 같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여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6. 목장 일정은?

각 목장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장의 형태는 교회 구성원들의 상황과 여러 부분들을 반영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매년 3월/9월에 개강하고, 7~8월/1~2월에는 방학을 합니다. 각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지치거나 탈진하면, 효과적인 나눔이 어렵습니다. 방학 기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재충전을 함께하고, 새롭게 힘을 모아 목장 모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7.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더온누리교회 목장은 [지역장-마을장-목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목자에게 연락 주시면 의견 수렴하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담당 교역자 및 지역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함께 지역 담당/고영숙 전도사 | 시니어(Senior)-푸른마을 지역장 /오성근 장로

더믿음 지역 담당/ 이학엽강도사_고영숙전도사 | 제1마을-제3마을 지역장 / 최광열 장로

더소망 지역 담당/ 김승호 목사_고영숙전도사 | 제4마을-제6마을 지역장 / 이혁주 장로

더사랑 지역 담당/ 윤찬영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7마을-제9마을 지역장 / 홍지호 장로

더은혜 지역 담당/ 김성연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10마을-제12마을 지역장 / 김종설 장로

더기대 지역 담당/ 정갑주 목사_이여진전도사 | 제13마을-제15마을 지역장 / 강경범 장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없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대답은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오늘은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1_기도 - 약속에 근거하여

이 시편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표제어의 설명)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를 원어로 번역하면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기도 (내가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 응답은 나의 시간&정성에 비례함
성경 속의 기도 (약속에 초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하심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의 원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 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2_기도 -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모세는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보내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 없이 보았습니다. '인생, 70, 신속하게 지나감'의 표현들은 모두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광야의 세상 속에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였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 속에 소망이 되었을까요? 답답함과 괴로움 가득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

모세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 주님, 이 한 주간 속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나눔] 이번 한 주간 내가 더 깊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3_기도 -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함을 내려놓고, 이 지식이 나의 심장까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함께하게 되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의 달콤함과 무거움을 아는 사람은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참된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목장을 시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